



순창군이 100% 순창산 토마토를 사용한 기능성 고추장을 만들기로 하고 토마토 수매에 들어가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창 토마토 새소득원 '부상'

기능성 고추장 만들기 위해 3톤 수매... 내년부터 50톤 확대

순창군이 100% 순창산 토마토를 사용한 기능성 고추장을 만들기로 하고 토마토 수매에 들어가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최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농민들로부터 토마토 3톤을 수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매한 토마토는 군이 최근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토고추장의 주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최근 토마토고추장에 사용되는 토마토를 100% 순창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수매에 들어간 것. 군은 올해 토마토고추장에 사용되던 원료인 완속토마토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8농가 1만6,040㎡의 토마토

를 시험 재배했다.

특히 딸기고설재배 농가의 휴경기인 5월부터 7월까지 토마토를 식재 수확해 시설의 활용도를 대폭 높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군은 내년부터는 토마토고추장에 사용되는 토마토 원료의 100% 순창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배기반을 확대하고 연간 50톤 규모로 토마토를 수매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토착미생물을 융합한 토마토고추장을 개발해 전주한옥마을 지역특산물 매장인 리던 등을 통해 유통하고 있으며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광주 ~ 대구간 고속도로 강진산 휴게소에서 토마토고추장을 사용한 비빔밥을 판매해 비빔밥 매출이 20% 급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마토고추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이 지역 토착미생물을 융합해 만든 토마토 고추장이 알려지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순창을 대표하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100% 순창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토마토 원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유기적 시스템을 만들어 100%순창 토마토 고추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고창읍의 중심번화기인 중앙로 일대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신선했던 명품 거리로 탈바꿈했다.

고창읍 중앙로 일대 전선 지중화로 '새 단장'

르네상스웨딩홀입구~월곡삼거리 구간 공사 마무리 단계

고창군(군수 박우정) 고창읍의 중심 번화기인 중앙로 일대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신선했던 명품 거리로 탈바꿈했다.

깨끗한 도시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은 고창읍 르네상스웨딩홀입구부터 터미널을 거쳐 월곡삼거리 부근까지의 고창읍 중앙로 1.72Km 구간에 대해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85억8000만원(한전본담금 포함)을 들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

행하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13일 전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노후화됐던 도로노면과 인도 불럭을 재포장하고 인도에 설치된 공중전화박스과 승강장, 신호등 개폐기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공공시설물도 재정비에 거리 환경을 밝게 했다.

전선 지중화는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맞은 도시경관 개선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 그동안 중앙로에 복잡하게 엉켜 있어 미관을 저해하던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해 거리 환경이 한층 더 밝아졌다"고 말하고 "공사 기간 중 불편함을 참고 이해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창군의 아름답고 청정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군, 읍면동 복지 허브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임실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기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일선 읍면 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군은 지난 1일부터 관촌, 신령, 신덕, 운암을 한 권역으로 묶은 '맞춤형복지팀'을 관촌면사무소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간조직과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촌면 맞춤형복지팀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면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후 첫 권역별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례자 9가구를 대상으로 권역형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육구별 가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특히, 사회복지 시설·기관과 주민들의 참여로 민간 협력을 통한 결과를 이끄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관촌면 맞춤형복지팀은 사례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철 면장은 "읍면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사례회의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공공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협력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 청정마을 도라지꽃 축제

16일~17일까지 체험프로그램·문화공연 등 열려

보랏빛 도라지꽃이 만발한 임실군 신안리 금동마을에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제1회 임실군 청정마을 도라지꽃 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지역의 자랑인 도라지 꽃밭을 배경으로 고엽제 전우회 임실지회와 금동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소규모 축제지만,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문화 공연이 계획돼 참가자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먼저, 축제 첫날인 16일은 필봉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35사단 군악단 공연, 도라지꽃 압화 체험,

가족동요대회, 도라지 깎기 대회, 가요제 예선 등이 진행되며, 17일은 도라지차 시음회, 걸그룹 공연, 장기자랑 등과 특별행사로 도라지꽃 사진작가 촬영 및 군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물이 판매될 예정이다.

한상수 축제위원장은 "도시민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 및 웰빙 농산물 등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며, "도라지꽃이 만개한 시기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가족과 연인들이 방문해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 농업경영인 활성화 대회 개최

고창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농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회장 노창득)는 13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사)한국농업경영인전북도연합회 류재관 회장,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지역 농업경영인과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고창군 농업경영인 활성화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업경영인 대회는 농업경영인으로서 자부심과 영농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사회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수희씨 등 우수 회원 15명이 군수표창을 수상했으며, 중앙연합회장 표창에 유홍근씨, 한국농어민신문사장 공로상에 고휘승씨, 도연합회장 표창에 하태선씨 등 많은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회원간 단합과 활성화를 위한

체육경기와 화합행사가 마련됐으며 치유?약선요리 전시 및 시식회, 국내의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우수 축산물 전시, 농업관련 리플렛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치유농업의 확산과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노창득 군 연합회장은 "농업경영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우리 농업경영인회가 앞장서자"며 농업경영인회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농업의 트렌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명품 농축산물 생산과 브랜드를 더욱 확고히해 국내외 어느 품목과도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농업경영인 활성화 대회를 통해 농업경영인회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필봉농악 전통연희극 공연 '성황'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임실필봉농악의 전통연희극 다섯 번째 이야기 '웰컴 투 중뎃이골 : 히히남락'이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5월 7일부터 필봉문화촌에서 열리고 있는 공연은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성황리에 열리고 있으며, 평균 객석점유율이 95%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7~8월 2개월 동안 당초 주1회에서 주2회로 공연 횟수를 늘려 매주 금·토요일 저녁 8시에 공연을 실시한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웰컴 투 중뎃이골' 시리즈는 2015년까지 필봉농악의 3대 상쇠 양순용의 삶을 모티브로 삼아의 삶과 애환을 담아냈

다.

금년에는 사회적 격변기인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필봉마을에 들어닥친 변화의 바람과 위태롭게 막을 이어가던 필봉마을을 비롯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 관계자는 "철수를 낀 다섯 필봉 할매들이 선보이는 진정성 어린 공연은 다른 공연에서 느낄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필봉문화촌을 중심으로 강천산, 회산, 사선대, 임실치즈데마파크, 옥정호 등 동서남북 4개의 코스로 구성된 '1박2일 품몰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643-100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자원봉사센터 이동 봉사활동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임금순) 전문봉사단 20여명은 13일 동계면 상외령 마을회관을 찾아가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이날 봉사활동은 동계면 상외령, 하외령 60여세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동빨래방봉사, 이마용 및 염색, 귀반사, 네일아트, 서클요법, 발마사지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와 연계해 실시한 2.5톤 이동빨래방 차량을 두꺼운 겨울이불 등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세탁봉사활동으로 인기를 끌었다. 또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준비해 드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떡, 과일, 음료 등 다과도 준비해 어르신들이 봉사활동도 받고 회관에서 식사와 함께 다과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지역어르신들을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남원시, 피서지 쓰레기처리대책 추진

남원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쓰레기 적기 수거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을 만들고자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처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13일부터 8월 31까지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내 뱀사골 계곡과 자연발생 유원지 등 27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시와 읍면동, 모니터링 등은 합동사 전점검을 실시하여 쓰레기 적량장, 재활용분리수거함, 음식물 수거통을 적정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계도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뱀사골 계곡 등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쓰레기 수거 전담반을 배치하여 매일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피서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처리 상황반, 기동청소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해당 지역 모니터링 요원이 쓰레기 관련 민원을 신고 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순창률, 여성대상 범죄예방 강화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통계과출소(소장 박현귀)에서는 지난 12일 동계면 사무소에서 개최된 기관장협의회에서 여성대상 범죄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기관간 협업체제 강화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로 날로 급증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구승정, 장문목 회장실 등 여성안심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단 한건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마을방범 CCTV설치,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예방을 위한 면허취득기회부여, 금융사기 대응요령 및 최근 교통사고 발생사례 설명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군, 맞춤형 급여제도 성과

임실군은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1년 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 대비 9.2% 증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맞춤형급여제도'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육구별 맞춤형체계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보장 범위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확인 및 월별조사를 통해 선정기준 적합 시 별도의 신청 없이 급여 결정이 가능해 전년 대비 생계급여 207가구 230명, 의료급여 134가구 207명, 주거급여 323가구 457명, 교육급여 87가구 139명이 증가한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특히, 군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인구비례 수급률 6.2%(29,306명 중 1,811명)로 전국 3.2%, 전북도 5.5%에 비해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5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초수급자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